



2020년 8월 16일(제995호) 연중 제20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구원행 열차 티켓”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평소에 우리가 접하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셨던 주님께서 왜 제 딸을 위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비를 간청하는 여인에게 매정하게 대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시며 나무랍니다. 이 말씀은 내용만 놓고 보면 한 사람을 ‘개’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하느님께 선택된 민족이기에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개’로 비유 당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마련돼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방인 여인을 통해 구원은 출신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주십니다. 그렇게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감동한 예수님은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그 여인의 딸이 낫게 됩니다.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관계된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속해있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느냐?’ 또한 ‘세례받은 이로서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구원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병사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행 KTX 열차 티켓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도 덧붙입니다. ‘그 구원행 티켓은 세례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열차를 타는 탑승구까지 도착하는 길을 알아야만 기차에 탈 수 있다. 그 길을 찾아 좌충우돌 부딪히며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선행을 실천하며, 주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며, 부를 쫓기보다 가난을 선택해야 하고, 많이 가지려 인간됨을 쓰기보다 나누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선물처럼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행 열차를 타기 위해 탑승구까지 도착하는 여정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경욱(미카엘) 신부
희상대(10집비전) 성당 주임

이 여인을 통해 구원의 문제는 종족이나 민족에

- 제 1 독 시 이사 56,1.6-7
- 회답 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제 2 독 시 로마 11,13-15.29-32
-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 복 음 마태 15,21-28
- 영성제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최필제 베드로



성인명: 최필제 베드로 (崔必悌 Peter)

신분: 중인, 약재상, 순교자

활동연도: 1770-1801년

최필제(崔必悌) 베드로는 1770년 한양의 의원 집안에서 태어나, 약국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는 1801년에 순교한 최필공 토마스의 사촌 동생으로, 1790년에 그와 함께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본래 진실하고 후덕한 성품을 지녔던 최 베드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질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또 그가 파는 약은 값이 싼 데다가 약재도 좋아 모두가 신용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사촌인 최 토마스는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그에게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실행에 옮길 정도였다.

최 베드로는 천주교에 입교한 뒤 교리를 실천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때 최 토마스의 아우 중에서 신자들을 욕하면서 다니는 이가 있었는데, 그도 '최필제만은 본받을 만하다.'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1791년의 신해박해 때, 최 베드로도 사촌인 최 토마스와 함께 체포되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최 토마스만큼 신앙이 굳지는 못하여 일찍 박해자들에게 굴복하고 석방되었다. 또 석방된 뒤에는 거짓으로 최 토마스의 자백서를 써서 관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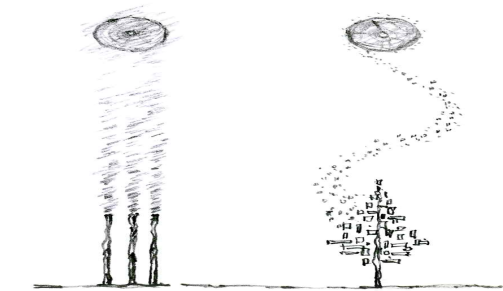
이후 최 베드로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교회 일을 돕거나 교리를 전파하는 데 열중하였고, 신입 교우들을 자신의 집에 모아 놓고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입국하자 그를 찾아가 성사를 받았으며, 자주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러다가 음력 1800년 1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신입 교우들과 모임을 하던 중에 체포되어 형조의 옥에 갇혔다.

최 베드로가 다시 체포되자, 그의 늙은 부친은 놀란 나머지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 그때까지 그의 부친은 비신자였는데,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때 최 베드로는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형조에 요청하였다. 이옥고 옥에서 나오게 된 그는 장례를 치른 뒤, 곧바로 형조로 가서 다시 옥에 갇혔다. 그때 형조의 관리들은 그에게 넉지시 도망할 것을 귀띔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옥으로 돌아오기에 앞서 그는 몇몇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순교의 뜻을 밝혔다. "나는 마귀에게 원수를 갚고, 전에 내가 배교했던 일을 보속하려 하네.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자 내 머리를 바치는 것일세."

최필제 베드로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차례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5월 14일(음력 4월 2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원의

꽃잎을 날려

님께 향하는

마음을 날려

우리는

희망입니다.

상화이야기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 성화는 오늘 복음 말씀을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지병이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그린 성화이다.(마르 5,27-30)

윌리엄 블레이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성화는 아니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철학과 사상으로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남겼다. 이 성화에서 여인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의 옷자락을 뚫고 간신히 힘들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 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하고 물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윌리엄 블레이크, 1808년 제작
린타, 빅토리아&앨버트 미술관

즉,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믿음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술 위함 미사 - 연중 제20주일: 봉경 강신포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8월 16일(주일) 11:00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르” - “예수님께서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